

2020년 동남권 경제전망

백충기 연구위원(cgbaek@bnkfg.com)

2020년 동남권경제는 2.1%의 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0.0%, 2018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바닥을 찍은 동남권경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반등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제조업 개선 폭이 확대되면서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다. 조선, 자동차 회복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철강, 기계도 완만한 회복흐름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석유화학은 금년보다 업황이 둔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비스업은 주력산업 개선 및 정부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민간소비 회복 등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경제의 장기침체로 인해 훼손된 소비심리가 생산, 수출, 고용 등 경제지표 반등의 영향으로 완만하게 회복하면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업의 경우 부진 폭이 축소될 전망이다. 부동산시장은 지역 제조업 개선, 투자심리 회복 등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SOC 투자 확대 등 공공부문 정책효과도 기대되기 때문이다.

세계경제, 신흥국 반등에 힘입어 개선 전망

2020년 세계경제는 올해보다 높은 3.4%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선진국이 금년수준의 성장에 머물겠지만 신흥국은 성장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미중 무역갈등, 노딜 브렉시트, 중국 성장둔화 등이 내년에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경우 감세효과 약화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성장률이 소폭 둔화되겠지만 견조한 성장세는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는 제조업 생산부진,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미약한 성장에 그치고 일본의 경우 수출 부진, 소비 증가세 둔화 등으로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도는 정부 경기부양 정책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브라질은 연금 및 조세 부문 개혁효과로 반등이 기대되며 러시아도 완화적 통화정책 등으로 금년 수준을 상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국은 수출 및 투자 부진 등으로 성장률이 올해보다 하락할 전망이다.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

국가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세계	3.4	3.8	3.6	3.0	3.4
선진국	1.7	2.5	2.3	1.7	1.7
(미국)	1.6	2.4	2.9	2.4	2.1
(유로)	1.9	2.5	1.9	1.2	1.4
(일본)	0.6	1.9	0.8	0.9	0.5
신흥국	4.6	4.8	4.5	3.9	4.6
(중국)	6.7	6.8	6.6	6.1	5.8
(인도)	8.2	7.2	6.8	6.1	7.0
(브라질)	-3.3	1.1	1.1	0.9	2.0
(러시아)	0.3	1.6	2.3	1.1	1.9

자료 : IMF

국내경제, 완만한 회복흐름 시현할 전망

국내경제는 금년중 2.0% 성장률을 기록하며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세가 예상되나 내년에는 설비투자 및 수출이 반등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소비는 정부의 소비활성화 정책 확대 및 소비심리 개선 등의 효과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부문을 중심으로 설비투자도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건설투자의 경우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겠으나 정부의 SOC 투자 확대 등의 효과로 지난해보다 감소 폭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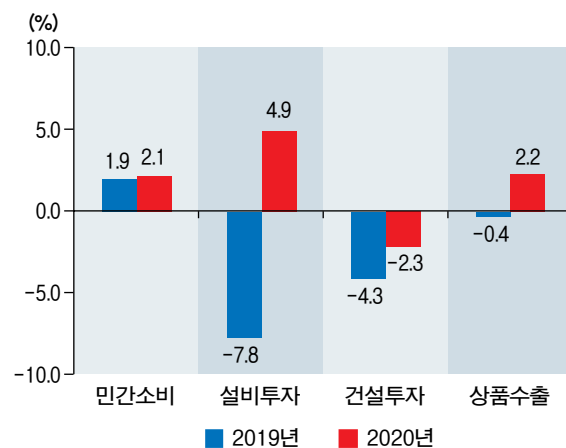
수출은 선진국이 양호한 성장을 지속하고 신흥국의 수입수요가 확대되면서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완화될 경우 수출 회복세는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전망기관	2019	2020
한국개발연구원 (19.11)	2.0	2.3
한국은행 (19.11)	2.0	2.3
OECD (19.11)	2.0	2.3
IMF (19.10)	2.0	2.2

자료 : 각 기관, 국제금융센터

국내 부문별 성장률 전망



자료 : 한국은행

동남권경제, 8년 만에 2%대 성장 기대

2020년 동남권경제는 2.1%의 성장률을 시현할 전망이다. 2017년 0.0%, 2018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바닥을 찍은 동남권경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반등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같은 성장률 제고는 제조업 개선 폭 확대에 주로 기인한다. 조선, 자동차 회복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전방산업 개선 등으로 철강, 기계도 완만한 회복흐름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석유화학은 공급과잉 등으로 금년보다 업황이 둔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비스업은 견조한 성장세를 시현할 전망이다. 주력산업 개선 및 정부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민간소비 회복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지역경제의 장기침체로 인해 훼손된 소비심리가 생산, 수출, 고용 등 경제지표 반등의 영향으로 완만하게 회복하면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부진 폭이 축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동산시장은 지역 제조업 개선, 투자심리 회복 등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SOC 투자확대 등 공공부문 정책효과도 기대되기 때문이다.

2020년 동남권 경제성장률 전망¹⁾²⁾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동남권	2.0	0.9	1.5	1.8	1.1	0.0	-0.3	1.2	2.1
전 국	2.4	3.2	3.2	2.8	2.9	3.2	2.7	2.0	2.3

주 : 1) 동남권 경제성장률은 BNK금융경영연구소 추정치(2018년, 2019년) 및 전망치(2020년)

2) 전국은 한국은행 추정치(2019년) 및 전망치(2020년)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BNK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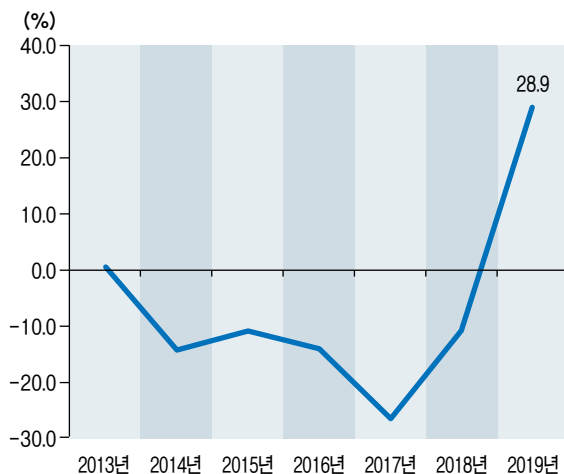
조 선

동남권 조선업 생산은 금년 1~9월중 전년동기대비 28.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하였으며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내년에는 높은 수주량을 기록했던 2018년의 물량이 본격적으로 건조되면서 생산 증가 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건조물량이 2019년 9백만CGT 수준에서 2020년에는 1천만CGT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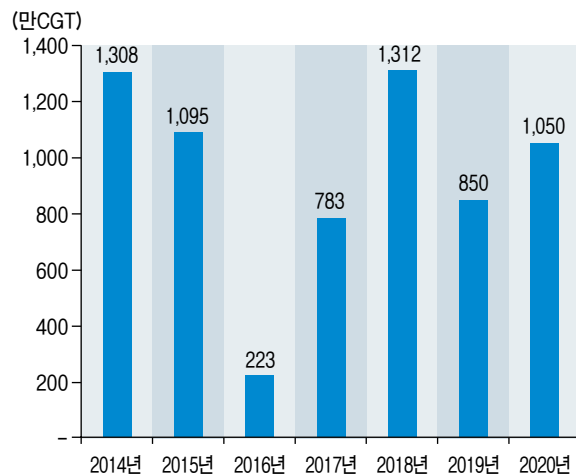
선박수주의 경우 금년에는 환경규제 등을 앞둔 선사의 관망세 및 미중 무역분쟁 등에 따른 글로벌 발주물량 축소의 영향으로 지난해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하지만 내년에는 한국이 높은 점유율¹⁾을 보이고 있는 LNG선의 대규모 발주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IMO(국제해사기구) 환경규제의 본격적인 시행²⁾으로 선사들의 발주도 크게 늘어남에 따라 금년 주춤했던 수주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권 조선산업 생산 증가율



주 : 전년대비 증가율
2019년은 1~9월중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국내 조선산업 수주 전망



주 : 2019년, 2020년은 한국수출입은행 전망치
자료 : Clarkson, 한국수출입은행

1) 2019년 1~10월중 전세계 LNG선 발주물량의 87.2%를 한국이 수주

2) 황산화물(SOx) 배출규제는 2020년 1월부터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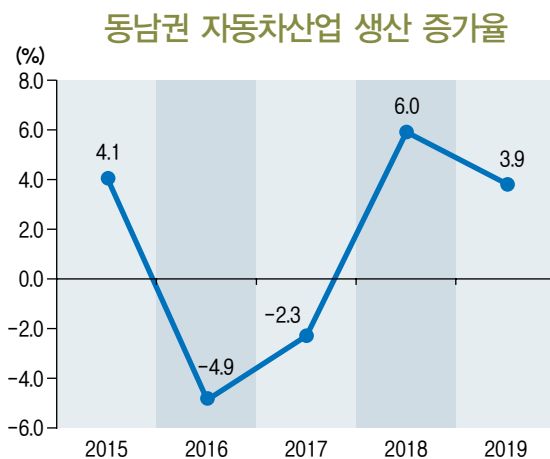
자동차

동남권 자동차 생산은 지난해 하반기 플러스로 전환된 이후 금년 1~9월중에도 전년 동기대비 3.9%의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같은기간 전국은 1.2% 증가에 그쳤는데 이는 동남권 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높은 현대차가 호조세를 보인 반면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실적이 부진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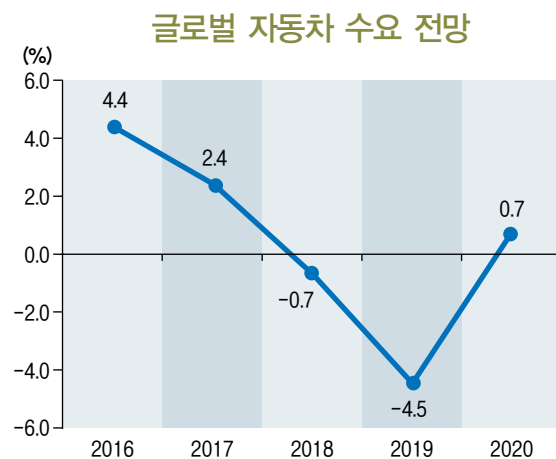
금년 1~9월중 현대차는 4.3%의 생산 증가세를 시현하였다. 기아차가 2.9% 증가에 그치고 르노삼성(-24.9%), 한국지엠(-7.7%), 쌍용(-0.4%) 등은 마이너스 성장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내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완성차 업체별 실적 차별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대차 영향력이 높은 동남권은 개선세가 강화될 전망이다. 현대차는 북미와 EU를 중심으로 SUV 및 친환경차의 판매 증가세³⁾가 지속되고 내수시장도 신차 라인업 강화 효과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글로벌 자동차수요의 증가세 전환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LMC Automotive (2019.11)는 최근 발표에서 지난 2년간 감소했던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내년에는 0.7%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주 :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 LMC Automotive

3) 2019년에도 1~9월중 친환경차 수출은 18만 448대에 달하며 전년동기대비 41.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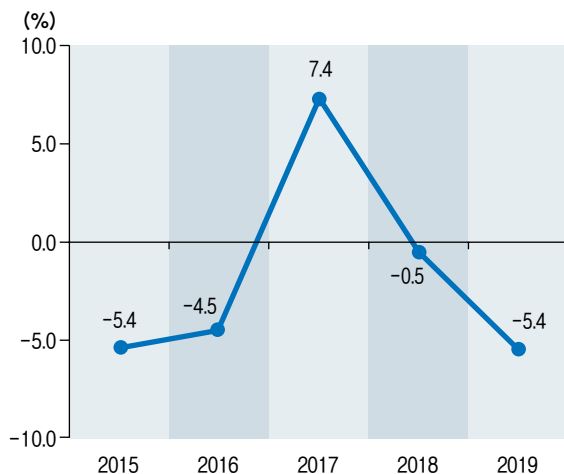
기 계

동남권 기계산업 생산은 금년 1~9월중 전년동기대비 5.4% 감소하였다. 화학기계, 건설기계 등 산업기계부문⁴⁾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났으나 내수가 크게 부진하였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동남권 기계산업의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된다. 조선, 자동차 등 전방산업 개선 및 정부 재정정책 효과 등으로 설비투자가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내수시장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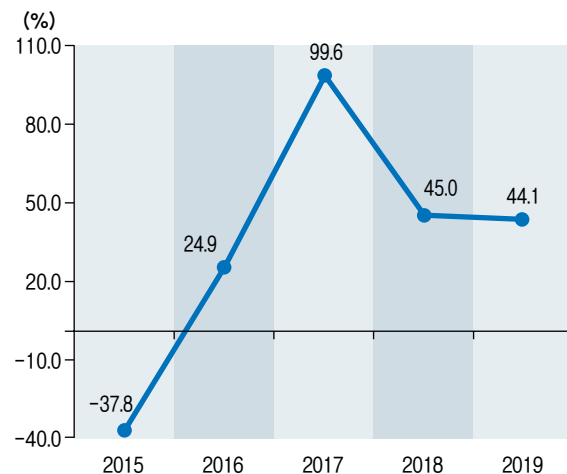
수출도 인도⁵⁾ 및 러시아 건설경기 회복 등 신흥국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동남권 기계산업의 최대 수출국 미국의 수입수요는 크게 확대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의 건설경기가 2017년을 고점으로 하락하면서 굴삭기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 등은 수출 증가세를 일부 제약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남권 기계산업 생산 증가율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중국 굴삭기 판매 증가율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블룸버그

4) 카자흐스탄에 대한 화학기계 수출, 러시아에 대한 건설기계 수출이 크게 증가. 특히 경남의 화학기계(MTI코드 7216) 수출은 금년 1~10월중 전년동기대비 655.2% 증가한 15억 2천만달러에 달함

5) 업계에서는 2018~2023년 인도 굴삭기 시장의 성장전망을 약 18% 수준으로 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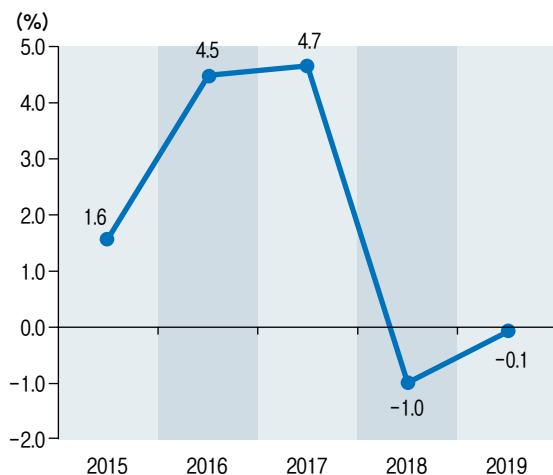
석유화학

동남권 석유화학산업 생산이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로 수요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신규 설비가동에 따른 공급증가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내년에도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무엇보다 미국 ECC 및 중국 NCC 등 생산설비⁶⁾ 증설에 따른 공급확대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기초화학제품⁷⁾의 연간 수요 증가분은 2천만톤 내외인 데 반해 공급 증가분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3천만톤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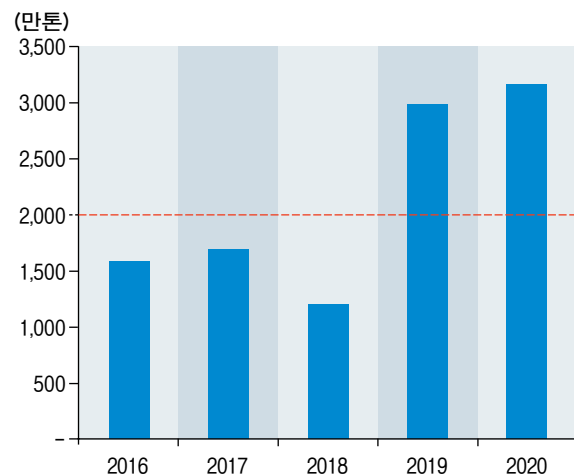
이와함께 주요 수출대상국인 중국의 자급률 제고 등도 수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2011년 70% 수준이었던 중국 석유화학제품의 자급률이 내년에는 9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남권 석유화학산업 생산 증가율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전세계 기초화학제품 공급 및 수요 증가분



주 : 막대는 연간 공급 증가분,
점선은 연간 수요 증가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6) 에틸렌 생산설비는 납사를 원료로 하는 NCC(Naphtha Cracking Center) 설비와 에탄가스를 원료로 하는 ECC(Ethane Cracking Center) 설비로 양분

7) 기초화학제품은 에틸렌, 프로필렌, 메탄올, 벤젠, 파라자일렌, 염소 등 6가지 제품을 의미

8) 글로벌 컨설팅 기업 IHS Markit은 기초화학제품의 설비 가동률이 당분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파라자일렌, 에틸렌 부문이 크게 부진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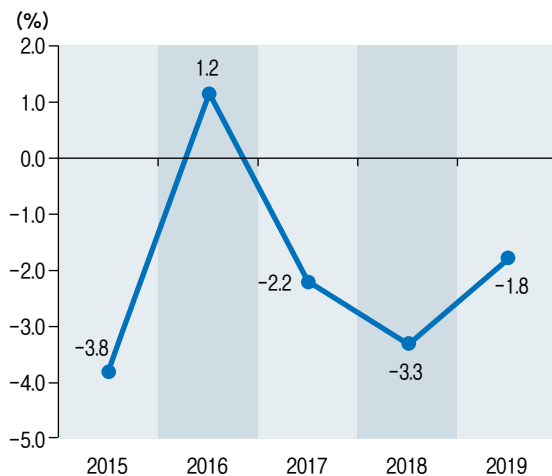
철 강

동남권 철강산업이 금년에도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 등 전방산업⁹⁾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중국 생산 확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지속 등으로 수출이 부진한 데 주로 기인한다. 또한 원료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업계수익성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동남권 철강산업 업황이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 자동차 등 동남권 주력 산업 회복의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면서 견조한 내수 증가세를 시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정부의 환경규제 강화 및 철강산업 구조조정 등 공급량 조절 효과에 따른 반사이익도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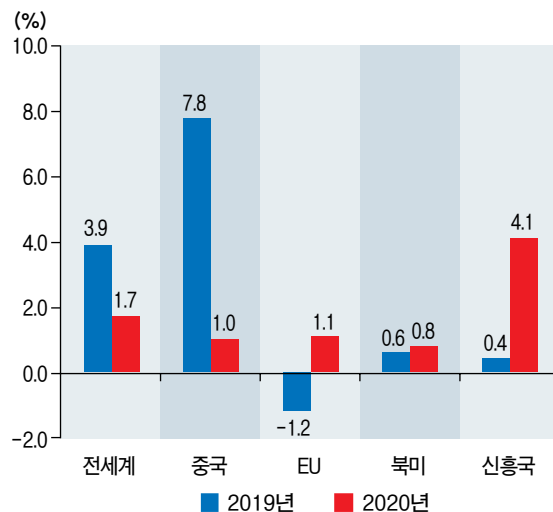
다만 수출은 부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U, 북미, 신흥국 등의 철강수요 개선에도 불구하고 최대 수요국인 중국의 수요둔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세계철강협회는 글로벌 수요 증가세가 금년(3.9%)을 크게 하회하는 1.7%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동남권 철강산업 생산 증가율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

세계 철강수요 증가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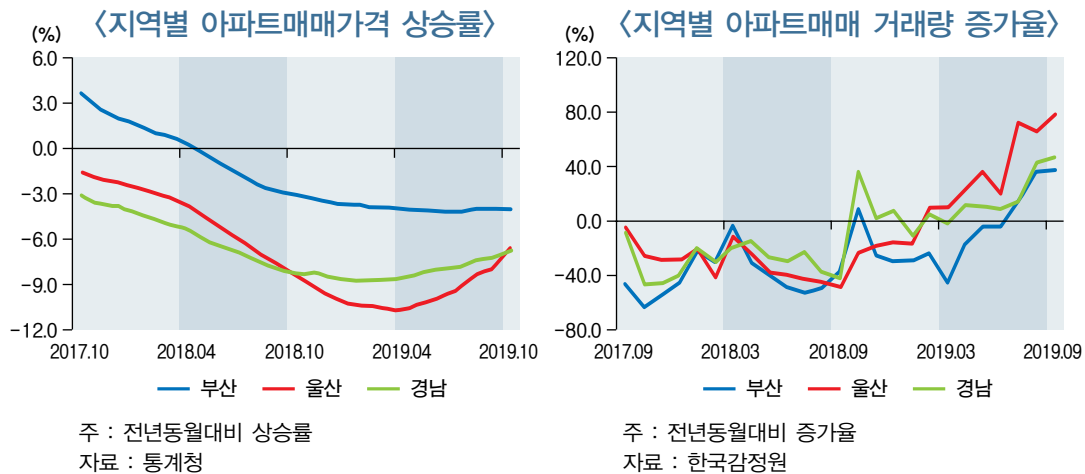
자료: 세계철강협회

9) 국내 철강산업의 업종별 소비비중을 살펴보면 건설(48%)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동차(19%), 조선(16%), 조립금속(7%), 기계(4%), 기타(6%) 순임

[참고] 동남권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

최근 동향

- 동남권 아파트매매가격은 최근들어 하락 폭을 축소
 - 경남 거제, 창원 및 울산 동구 등 조선업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하락세가 진정되는 모습
 -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 등 일부지역은 조정대상지역 해제(11월 6일) 효과로 가격 상승세 시현
- 아파트매매거래량의 경우 2019년 4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
 - 2019년 9월 현재 거래량은 6천호 수준



향후 전망

- 동남권 부동산 시장은 지역 제조업 개선, 투자심리 회복 등을 감안할 때 일부 지역 중심으로 상승세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급측면에서의 부담은 지속될 가능성

* 동남권 아파트물량은 2017~19년중 연간 7만호 이상이 공급되었으며, 내년에도 5만호 수준이 예상

[지역별 입주(예정)물량]

- 동남권 : 70,245호(2018년) → 79,437호(2019년) → 45,844호(2020년)
- 부 산 : 24,492호(2018년) → 25,689호(2019년) → 24,928호(2020년)
- 울 산 : 10,159호(2018년) → 11,718호(2019년) → 2,941호(2020년)
- 경 남 : 35,594호(2018년) → 42,030호(2019년) → 17,844호(2020년)

[참고문헌]

- 포스코경영연구원, 자동차 시장 부진, Peak Car 시그널인가, 2019.7
 한국금융연구원, “2019년 금융동향과 2020년 전망,” 2019.11
 한국수출입은행, “해운조선업 2019년 3분기 동향 및 2020년 전망,” 2019.10
 ———, “석유화학산업 원료별 경쟁력 비교,” 2019.10
 ———, “석유화학산업 동향 및 전망(working paper),” 2019.10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19.11
 현대경제연구원, “2020년 주요 산업별 경기 전망과 시사점,” 2019.11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9.10
 LMC Automotive, “2020: An end to the global car market slump?,” 2019.11
 OECD, “Economic Outlook and interim Economic Outlook,” 2019.11
 통계청, www.kosis.kr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한국석유화학협회, www.kpia.or.kr
 WSA, www.worldsteel.org

BNK경제인사이트 발간목록

2014

- 05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남권 수출의 변화와 시사점
- 06 | 부산지역 아파트 시장 동향과 전망
- 07 | 글로벌 해운시장 전망과 동남권 조선업의 과제
- 08 | 동남권지역의 고용구조 변화와 시사점
- 09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엔화환율 동향과 전망
- 10 | 동남권 지방은행의 그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11 | 2015년 동남권 경제전망
- 12 | 월드클래스 300기업의 특징과 지역기업에 대한 시사점

2015

- 01 | G2경제 항방과 동남권 경제에 대한 시사점
- 02 | 최근 국제금융시장 진단과 시사점
- 03 | 동남권의 중남미 교류 현황과 과제
- 04 | 지역경제 혁신의 동력 - 사물인터넷
- 05 | 동남권 자동차산업 현황과 과제
- 06 | 동남권지역 서비스업 현황
- 07 | 최근 기업금융 현황
- 08 | 중국경제 전망과 동남권 경제에 대한 시사점
- 09 | 동남권지역 주택시장 현황
- 10 | 동남권 창업생태계와 발전과제
- 11 | 2016년 동남권 경제전망
- 12 | 경쟁력 우위 조선해양기자재업체의 특징

2016

- 01 | 중국경제에 대한 최근의 시각
- 02 | 회사채 시장 동향 분석
- 03 | 10대 신흥국(중국제외)에 대한 동남권지역 수출 분석
- 04 | 동남권지역 건설업 분석
- 05 | 한국형 양적완화와 구조조정
- 06 | 주요국 통화 환율 동향과 전망
- 07 | 브렉시트와 지역경제
- 08 | 동남권 상장기업 경영실적 분석
- 09 | 동남권지역 대출 및 예금시장 동향
- 10 | 동남권지역 소매판매 동향 및 특징
- 11 | 2017년 동남권 경제전망
- 12 | 동남권 수출 변화 및 시사점 : 최근 5년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2017

- 01 | 동남권 아파트 가격 동향 및 전망
- 02 | 4차 산업혁명과 동남권 일자리
- 03 | 동남권 기업의 인도차이나반도 진출현황 및 시사점
- 04 | 글로벌 환율동향과 동남권 경제
- 05 | 원자재시장 동향 및 시사점
- 06 |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과제
- 07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동남권의 미래
- 08 | 동남권 주력산업 수출동향과 전망
- 09 | 동남권 산업생태계와 향후 과제
- 10 | 인구구조 변화와 동남권의 과제
- 11 | 2018년 동남권 경제전망

2018

- 01 | 동남권 수출과 지역경제
- 02 | 동남권 자동차 부품산업 동향과 전망
- 03 | 동남권 부동산 시장 점검
- 04 | 동남권 서비스업 고용 변화
- 05 | 동남권 뿌리산업 현황 및 시사점
- 06 | 동남권 100대 기업 변화
- 07 | 동남권 기계산업 현황 및 전망
- 08 | 동남권 철강산업 현황 및 시사점
- 09 | 최근 10년간 지역금융시장 변화 분석
- 10 |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전망
- 11 | 2019년 동남권 경제전망
- 12 | 키워드로 되돌아본 2018년 동남권 경제

2019

- 01 | G2경제 진단 및 시사점
- 02 | 동남권 건설업 현황 및 시사점
- 03 | 동남권 자영업 현황 및 시사점
- 04 | 사물인터넷 산업현황과 동남권 발전과제
- 05 | 동남권 산업단지 현황 및 발전 방안
- 06 | 동남권 강소기업 특징 및 시사점
- 07 | 2019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 08 | 동남권의 일본 수출입 현황 및 시사점
- 09 | 동남권 소비동향 및 시사점
- 10 | 동남권의 아세안 교류 현황 및 발전과제
- 11 | 2020년 동남권 경제전망

[BNK人side]

당신의 삶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금융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며
사람을 위한 일이니까,
고객을 위한 일이니까,
BNK금융그룹은 고객 안에서
금융의 길을 찾겠습니다

당신을 봅니다
당신에
되어 봅니다

BNK 금융그룹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캐피탈 BNK 투자증권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신용정보 BNK 시스템

BNK BNK금융지주

제2019-11호

신고번호 부산남, 라00006

신고일자 2016년 10월 14일

발행인 김지완

편집인 김성주

발행처 BNK금융지주 (www.bnkfg.com)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연락처 Tel : 051-620-3180 Fax : 051-620-3199

인쇄 애드벤처

2019년 11월 29일 발행

BNK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BNK경제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금융분야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